

## Fox Story in Korea, The Transcendental Character and Transforming Pattern of Foxes

Yoo, Hyoung-dong

Assistant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Korea

micmchd@naver.com

### Abstract

**Objectiv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tory of a Korean fox. And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to look at how the shape of a fox with transcendent abilities changes. The aspect of the transcendence of foxes was examined for works such as “Wonggwangseohak”, “Kang Gam-chan”, “Jeon Woo-chijeon”, and “Ihwajeon”.

**Methods** Through public and synchronous research methods of works such as “Wonggwangseohak”, “Kang Gam-chan”, “Jeon Woo-chijeon”, and “Ihwajeon”, the aspect of transcendence and transformation of foxes were examined.

**Conclusions** In “Wonggwangseohak”, foxes appeared as gods that contributed to Wonkwang's rise to the level of the divine spirit as a new skill. In addition, “Kang Gam-chan” has a godlike character that gives birth to hero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cendence of foxes has the ability and causality of Kang Gam-chan. In these two works, foxes were considered to have divine transcendence in that they contribute positively to humans. On the other hand, in “Jeon Woo-chijeon”, it was revealed that foxes have a double personality that helps Jeon Woo-chi acquire magic and commits evil deeds at the same time. And in “Ihwajeon”, it was examined that foxes are strongly exposed to eccentric transcendence as monsters that harm people through transform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ox's ability to transform extends not only to humans but also to gods, and based on this, it is developing revenge against Ewha. It was discovered that foxes with transcendent character showed divine transcendence in the early days and are transforming into beings with eccentric transcendence in the late stages

**Keywords** fox, transcendence, ghost, god, monster, antagonist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0.312.006](https://doi.org/10.23159/IJKC.2023.10.312.006)

Received: Sep. 20. 2023 ; Reviewed: Oct. 10. 2023 ; Accepted: Oct.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한국의 여우 이야기, 여우의 초월적 성격과 변모 양상\*

유형동

---

### 목 차

1. 서론
  2. 한국의 여우담, 여우가 지닌 초월적 성격
  3. 한국의 여우담, 여우의 초월성의 서사적 변모 양상
  4. 결론
- 

### 1. 서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여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속신(俗信)을 보면, 여우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변신한 구미호가 사람을 해친다는 <구미호> 설화<sup>1</sup> 부모의 부정적 기녀치성의 결과로 반인반호의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 여우누이가 집안을 몰락시킨다는 <여우누이> 설화<sup>2</sup> 여우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여우는 변신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인간을 해치는 요괴로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 무덤을 파서 송장을 먹는 해물(害物)’이라는 말이나, ‘여우가 사람의 앞을 질러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등의 속신 또한 여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여우와 관련된 기록과 설화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여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

\* 이 글은 학회의 요청으로 2010년에 발표한 ‘여우의 초월적 성격과 변모 양상’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명현 (2007). 구미호에 대한 전통적 상상력과 애니메이션으로의 재현: <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8(3), 189-210.

2 박대복, 유형동 (2009). <여우누이>에 나타난 요괴의 성격과 퇴치의 양상. 어문학, 106, 149-177.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부 문헌자료와 설화에서는 여우가 신성한 존재로 나타나도 한다. 이러한 기록은 여우가 긍정성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초기 사회의 동물숭배관념’과 관련시켜본다면 여우가 신성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여우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숭앙되다가 점차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여우에게는 긍정/부정의 관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우에 대한 상이한 관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뤄진 바 있다. 강진옥은 ‘여우변신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신성’과 ‘마성(魔性)’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이 변신물로 존재하는 여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우의 신성이 약화되는 과정이 구체화된다고 하였다.<sup>3</sup> 또한 이윤경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여우가 긍정·부정의 이중적 양상으로 존재하는데 퇴치설화에서 ‘악물(惡物)’로 고정화 되는 경향이 강하며, 여우의 변신은 불교와 관련을 맺고 형상화된다고 하였다.<sup>4</sup> 이들 연구는 설화를 검토하여 여우의 초월성 대한 관념이 이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원적 인식의 구체적 변모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초월성을 지닌 여우는 설화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꾸준히 호명될 정도로 우리의 문화 속에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초월성의 양상과 변모과정에 대해서 다뤄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우가 지닌 초월성의 변모양상을 살피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전소설까지 그 연구 범위를 넓혀 여우의 초월성이 변모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우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를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변모양상의 고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여타의 설화들에 비해 작품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원광서화>, <강감찬>의 출생담<sup>6</sup>, <전우치전>, <이화전>등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원광서화>은 『삼국유

3 강진옥 (1994).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5-40.

4 이윤경 (1999). 여우의 이중성과 불교적 변신의 의미: 삼국유사 설화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2, 257-268.

5 이명현 (2009). 전설의 고향에 나타난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변주. 우리문학연구, 28, 67-95.

6 강감찬의 출생담은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의 두 가지 양상으로 존재한다. 문헌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에서는

사』에 수록된 작품으로 역사인물설화라는 점에서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강감찬>은 구비설화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형성된 시기의 상한선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전우치전>은 17세기에 형성된 소설이라는 기존의 견해를<sup>7</sup> 수용한다면 작품의 창작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화전>은 1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바<sup>8</sup>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문학사적 조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작품에서 여우의 초월성이 어떤 성격을 지니며 어떻게 변모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의 여우담, 여우가 지닌 초월적 성격

### 2.1. 신(神)의 성격 : <원광서학>

『삼국유사』의 <원광서학>에는 여우의 초월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고본수이전(古本殊異傳)』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광법사전>이 바로 그것인데,<sup>9</sup> 여기서 여우는 ‘신’이라 지칭되며 원광이 신승(神僧)이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 원광이 30살 때 삼기산에서 수도하다.

-24년 후 주술을 일삼는 비구승이 와서 수도하다.

(나) -1 신성(神聲)이 들려 비구는 원광에게 주술만 닦아 정념을 방해하니 옹기계 하라고 하다.

-2 원광이 비구에게 신의 말을 전하자, 비구는 호귀(狐鬼)의 말에 현혹되느냐며 거절

---

천상존재의 하강모티프가 드러나며, 강감찬은 문곡성의 현신으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에서는 이물 교혼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고, 강감찬은 초월성을 지닌 여우의 소생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구비 전승되는 강감찬의 출생담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며,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강감찬>은 구비전승 되는 강감찬의 출생담을 지칭하다.

7 조동일 (1984). 고전소설과 정치: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학, 4(3), 46-63.

8 이주영은 <이화전>을 설화를 소재로 한 실험작이며, 19세기에 소설대중화에 따른 독자의 요구에 맞춰 창작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주영 (2004). <이화전> 연구. 과학과 문화, 1, 159.

9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5, 「원광서학(圓光西學)」.

하다.

-3 신이 벼락으로 산을 무너뜨려 비구의 암자를 묻어 버리다.

(다) -1 신은 나이가 3000이고, 신술로 미래의 일과 천하의 일을 안다고 하다.

-2 원광에게 중국에 유학하여 불법을 배워 이타(利他)의 공을 이루라고 하다.

-3 원광이 바다와 육지가 막혀 불가능함을 말하다.

-4 신이 중국에 갈 수 있는 계책을 자세히 알려주어 유학을 떠나다.

(라) -1 11년 후 돌아온 원광이 삼기산에 찾아가 신에게 계(戒)를 받다.

-2 원광이 신의 진용(眞容) 보기를 원하자 신이 하늘까지 닿은 팔을 보여주다.

-3 신이 원광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며 전송을 부탁하다.

-4 원광이 신이 말한 곳을 찾아가 검고 늙은 여우가 죽어 가는 것을 보다.

(가)는 원광이 삼기산에서 수도할 때, 그 가까운 암자에 주술을 행하는 비구승이 와서 머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비구승은 ‘주술’을 일삼는다고 했다. 여기에는 주술이 일반적인 수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사술에 가깝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나)에서는 신의 초월적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신은 목소리로 원광에게 현현하는데, 비구승이 자신이 다니는 길에 머물며 주술을 일삼아 정념을 방해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비구승은 오히려 호귀에게 현혹되느냐며 거절한다. 이에 신은 산을 무너뜨려 비구승이 머무는 암자를 묻어 버림으로써 비구승을 징치한다. 여기서 신의 초월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은 원광과 비구승 사이의 일을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도에 어긋나는 주술을 행하는 인물을 징치하는 것으로 신의 역할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신의 전지적 능력과 원조자적 성격이 나타난다. 신은 자신이 삼천 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미래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광에게 이타의 공을 이루라며 당(唐) 유학을 권하고, 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 여기에서 신의 초월적 능력 발휘의 핵심적인 의미는 원광이 흥미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 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라)에서 신은 원광에게 본신을 드러내고 죽음을 맞이한다. 11년간의 유학생황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원광은 삼기산의 암자를 찾아가 신을 만나고 계를 받는다. 원광이 신에게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자 신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팔을 원광에게 보여준다. 목소리로

만 원광에게 나타났던 신이 몸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다. 신의 팔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것은 신이 지닌 초월성이 하늘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신은 자신의 죽음을 원광에게 알리며 마지막을 지켜봐줄 것을 부탁한다. 원광이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를 찾아가니 검은 빛을 띤 늙은 여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로써 신의 정체는 여우였음이 밝혀진다.

이 이야기에서 여우는 삼천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신적 존재이다. 여우의 초월적 능력은 정도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인물을 징치하고, 원광의 당 유학을 직접적으로 도와 원광이 신승의 경지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광의 당 유학은 원광 개인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원광에게 당 유학을 권하는 계기가 흥미한 무리를 지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sup>10</sup> 여우의 역할은 중생의 구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우의 초월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초월성의 발휘는 신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원광서학>에서 나타나는 신은 긴 수명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여우가 육신을 버리고 보다 높은 신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원광서학>의 여우는 신의 경지에 이른 모습으로 인세를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징을 보인다.

## 2.2. 신모(神母)의 성격 : <강감찬>

초월성을 지닌 여우는 <강감찬>설화, 특히 구전되는 강감찬의 출생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우는 강감찬의 부친과 관계하여 강감찬을 낳는 신모(神母)로서 나타난다. 전승되는 이야기를 단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가) 강감찬의 부친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나) -1 점쟁이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다.

-2 점쟁이가 1000명의 여자와 관계를 하되 999번은 방사하지 않고 정기를 모아 마지막에 제대로 관계하면 대인을 낳을 것이라고 하다.

10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5, 「원광서학(圓光西學)」.

11 서대석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3-202.

- (다) -1 강감찬의 부친은 전국을 다니면서 999명의 여자와 관계에서 방사하지 않다.
- 2 집에 있는 부인과 1000번째 관계를 위해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다.
- 3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관계를 맺고 방사하다.
- (라) -1 여인은 자신의 정체가 여우임을 밝히고, 1년 뒤에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하다.
- 2 그 아이가 강감찬인데 몸집이 왜소하고 여우를 닮았다.
- (마) -1 어린 강감찬이 부친과 혼례식에 초대받다.
- 2 강감찬이 신랑에게 호통을 치자 여우로 변하다.
- 3 강감찬은 여우를 퇴치하고, 여우가 신랑을 해치고 변신한 것이라고 말하다.

(가)는 강감찬 출생 이전의 상황으로 강감찬의 부친이 오랫동안 자식을 두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자식을 가지기 위한 적극적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에서 강감찬의 부친은 점쟁이에게 자식을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데, 점쟁이는 999명의 여자와 관계를 갖되 정기를 모아두고 1000번째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으면 뛰어난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다)에서 강감찬의 부친은 전국을 다니면서 999명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되 방사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기를 모아둔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서 강감찬의 부친은 뛰어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강감찬의 부친은 마지막 1000번째 관계를 자신의 부인과 맺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는데, 적극적으로 강감찬의 부친을 유혹한다.<sup>12</sup> 강감찬의 부친은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과 교합하게 되는데, 방사함으로써 부인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문복의 내용을 여인을 통해서 실현하게 된다.

(라)에서 보듯이 관계를 맺은 후 여인은 자신의 정체가 여우임을 밝힌다. 여우는 강감찬의 부친이 훌륭한 아이를 낳기 위해 정기(精氣)를 모은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sup>13</sup> 여우는 1년 뒤에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강감찬의 부친은 그 말에 따라서 아이를 얻게 된다. 여우가 낳은 이 아이가 바로 강감찬인데, 그는 몸집이 왜소하고 용모가 여우와 비슷하였다고 한다. 강감찬이 여우를 닮았다는 것은 여우와 강감찬 사이에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여우가 강감찬의 친모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sup>12</sup> 대부분의 각 편에서 미모의 여인이 강감찬의 부친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교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up>13</sup> 김은주 (2002). 강감찬 설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마)에서 강감찬은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알아보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여우의 소생으로서 강감찬의 비범성이 여우를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신이한 능력으로 표출된다는 의미이다. 강감찬은 부친과 함께 혼례식에 초대된다. 그런데 초례청에 도착해 신랑을 본 강감찬은 정체를 드러내라며 호통을 친다. 신랑은 강감찬의 얼굴을 보고는 기를 못 펴더니 이내 여우로 변한다. 이에 강감찬을 비롯한 초례청에 모인 사람들이 여우를 퇴치한다. 그리고 강감찬은 사람들에게 신랑이 혼례를 치르러 오는 길에 여우에게 해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강감찬이 둔갑한 여우를 알아본다는 점인데, 강감찬이 여우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즉 변신이라는 여우의 초월성과 변신한 여우를 알아보는 강감찬의 초월성이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여우는 변신이라는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강감찬의 부친과 교합함으로써 강감찬의 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강감찬이 지닌 신이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 흔히 신모는 국조(國祖)나 뛰어난 인물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획득하는 여성을 말한다.<sup>14</sup>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생산과 관련되는 능력을 지니고 신성혼, 여성수난 등을 거쳐 신으로 좌정하는 존재로 구체화된다. <강감찬>의 여우는 이물교혼으로 강감찬을 낳는다는 점에서 신모적인 성격이 인정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친모인 여우의 능력이 자식인 강감찬에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신모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강감찬>에 나타나는 신모의 특징이다. 그리고 강감찬은 신모에게 물려받은 신이한 능력으로 요물[요괴]을 퇴치하는 영웅적 활약을 한다. 즉 <강감찬>에서 여우는 강감찬 부친의 초인적인 노력을 알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영웅을 직접 낳고, 그의 신이한 능력을 담보하며, 영웅을 통해 인간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신모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3. 신물(神物)을 지닌 요괴의 성격 : <전우치전>

<전우치전>은 전우치의 도술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전우치의 도술은 초월성을 지닌 여우와 관련되어 있다.<sup>15</sup> 전우치는 소녀로 변한 여우의 호정을 빼앗아 삼키고 또 구미

14 김준기 (1995). 신모신화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1. ; 홍태한 (1999). 한국 신모 신화의 변화상 연구. 인문학연구, 3, 184.

15 전우치의 도술이 여우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일사본 계열의 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이본군인 나손본 계열이나 구활자본 계열에서는 전우치의 도술획득과정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사본

호로부터 천서를 얻어 도술을 얻게 된다. 우선 호정과 관련된 도술획득과정의 내용을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전우치가 부친의 친구인 윤공의 집에 수학하러 다니다.
- (나) -1 하루는 산 속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나다.  
-2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에 끌린 전우치는 소녀와 교합하다.
- (다) -1 윤공은 전우치에게 여자를 범하였으므로 글을 배워도 천지조화를 통치 못할 것이라고 하다.  
-2 윤공은 소녀의 입에 구슬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다.
- (라) -1 소녀를 찾아가 교합하던 전우치는 소녀에게 구슬을 보여 달라고 하다.  
-2 소녀는 전우치의 요구를 못 이겨 구슬을 전우치의 입에 넣어준다.  
-3 소녀는 구슬 돌려받으려고 하고 전우치는 구슬을 삼켜버리다.
- (마) 윤공이 자초지종을 듣고 전우치에게 호정(狐精)을 삼켰으므로 천지조화를 통하고 일흔 두 가지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가)에서 전우치는 부친의 친구(親友)인 윤공의 집을 오가며 수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우치는 부모를 슬하를 떠나 독립적 공간에서 여우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은 여우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우가 주인공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전우치는 윤공의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나는데 소녀는 ‘옥같은 용모와 아리따운 태도로 남자의 마음을 방탕’하게 할 정도로 매혹적으로 그려진다. 전우치도 이러한 소녀의 매력에 끌려 이야기를 나누고 교합하게 된다.

(다)에서 윤공은 전우치에게 여자를 범했으므로 그동안 수학한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나무란다. 그리고 소녀를 만나 그 입에 든 구슬을 빼앗아 오도록 시킨다. 윤공은 전우치에게 일어난 일의 전모를 소상히 알고 있는 이인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라)에서 전우치는 윤공의 말대로 소녀를 만나 입에 구슬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구슬

---

계열에서도 경판 22장본과 경판 17장본에서는 구미호와의 관계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사문고본 『던운치전』과 『던운치전』 경판 37장본을 대상으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본 계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격주 (1993). <전우치전> 연구. 한어문교육, 1, 227-254.

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주저하던 소녀는 전우치의 입에 구슬을 넣어준다. 잠시 후 소녀는 구슬을 돌려달라고 하고 전우치는 이를 무시한다. 그러자 소녀는 전우치의 입에 든 구슬을 강제로 꺼내려고 하고 전우치는 구슬을 삼켜버린다. 소녀는 구슬을 전우치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자 소녀는 울며 사라진다.

(마)에서 전우치는 윤공에게 돌아와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를 들은 윤공은 전우치가 삼킨 구슬은 호정이며, 그로 인해서 천지조화를 통하고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의 정체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윤공의 말을 통해서 여우였음이 밝혀진다. 이 여우는 전우치에게 변신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우치가 호정을 삼키는 행위를 통해서 여우의 초월적 능력이 전우치에게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녀로 변신한 여우가 입에 지니고 있는 구슬이 여우의 정기가 응축된 호정이라면, 그 구슬에는 여우가 지니는 초월성의 핵심인 변신술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슬을 삼키는 것은 여우의 정기가 전우치에게 옮겨갔다는 의미를 지닌다. 구슬을 삼킨 결과로 전우치는 일흔 두 가지 변신술을 획득한다고 하는데 강감찬의 사례에서처럼 여우의 초월성과 인물이 획득하는 능력 사이에 인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여우의 매혹적 변신술로 인한 교합으로, 전우치는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처한다. 즉 여우는 ‘변신’이라는 초월능력에 기반한 유혹자적 면모로 전우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우치에게 호정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신이한 능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긍정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전우치의 도술 획득은 이 여우뿐만이 아니라 천서를 가진 구미호와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구미호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단락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바) -1 명산대천을 유람하던 전우치는 세금사에 승려들이 요괴의 작란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다.

-2 세금사로 가는 길에 전우치는 선관으로부터 부용승과 부적을 얻다.

(사) -1 세금사에 머무는 전우치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접근하다.

-2 전우치는 혼인하자는 말을 하며 여인과 교합하고 술을 강권하다.

-3 여인의 몸에 진언을 써서 구미호임을 확인하고 부용승과 부적으로 제압하다.

-4 전우치는 구미호에게 호정을 요구하고, 구미호는 그 대신 천서 세 권을 내어 주다.

-5 전우치는 구미호에게 천서의 내용을 배워 도술을 익히다.

(아) -1 전우치는 은혜를 입었다며 구미호를 놓아준다.

-2 구미호는 윤공과 유모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우치를 혼란케 하고, 남은 천서 두 권을 훔쳐간다.

-3 전우치는 구미호의 소굴로 가고자 하나 길이 험하여 소굴을 찾지 못하다.

(바)에서 명산대천을 유람하던 전우치는 인적이 없는 세금사라는 절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성림사의 승려로부터 세금사와 성림사에 많던 승려들이 재변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재변은 요괴의 작란이라고 언급된다. 이로 인해서 승려의 일부는 달아나고 일부는 요괴의 해침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력을 들은 전우치는 세금사로 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부용승이라는 밧줄과 부적을 얻는다. 이 부용승과 부적은 전우치가 재변의 원인인 요괴와 대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물이다. 이 노인은 선관으로서 전우치에게 신물을 증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에서 세금사에 머물고 있는 전우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온다. 야심한 시각에 나타난 이 여인은 '장부의 애를 녹일만큼 아름다운 용모'로 전우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전우치는 여인과 혼인을 하자며 교합하고는 합환주라는 명목으로 여인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다. 그리고 잠든 여인의 몸에 진언을 써서 여인의 정체가 구미호임을 확인한 전우치는 선관에게 얻은 신물인 부용승과 부적으로 구미호를 제압한다.

전우치가 구미호를 묶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구미호가 바로 세금사와 성림사의 승려들을 해친 요괴라는 점이 밝혀진다. 전우치는 송곳과 방추로 구미호에게 위해를 가하며 호정을 요구하고, 구미호는 그보다 더 좋은 천서를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소굴로 전우치를 안내하여 천서 세 권을 내어준다. 이 과정에서 구미호는 끊임없이 도망칠 궁리를 하지만 전우치는 매번 송곳과 방추로 구미호에게 위해를 가하여 그 의지를 꺾는다.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얻지만 그 내용을 스스로 익히지 못하고, 구미호에게 그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여 도술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구미호는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승려를 해친 요괴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서를 지니고 있고, 전우치는 읽을 수도 없는 천서의 내용을 통달하고 있을 정도로 신이한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다. 구미호는 비록 전우치에게 포박당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것은 전우치의 능력이 구미호를 능가해서라기보다는 선관에게 받은 부용승과 부적의 신이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에서 전우치는 구미호의 도움으로 천서 한 권을 익히고 은혜를 입었다며 구미호를

놓아준다. 풀려난 구미호는 윤공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술(邪術)을 익혔다며 전우치를 꾸짖기도 하고, 유모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친이 별세했다고 하며 전우치의 정신을 혼란케 한다. 그리고는 아직 익히지 않은 천서 두 권을 다시 훔쳐간다. 이처럼 구미호는 “귀신도 당치 못 할 술법”을 익힌 전우치마저도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도술에 능한 존재인 것이다.

〈전우치전〉에서 두 여우는 공통적으로 고희적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변신하는 초월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전우치의 학문적 성취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는데 이용되고 있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우들은 호정과 천서 등 신물을 지니고 있다. 전우치는 이 신물로 도술을 얻게 된다. 특히 구미호가 지닌 천서는 하늘과의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전우치는 입을 수도 없는 특별한 신물이다. 그런데 구미호는 천서의 내용을 통달하여 전우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즉 구미호는 하늘의 이치를 알 정도로 신이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전우치전〉의 여우에게는 신이함과 괴이함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 2.4. 변신 요괴의 성격 : 〈이화전〉

〈이화전〉은 폐읍이 된 여산 고을의 원으로 자원한 이화가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여우와 이화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우는 변신 능력을 지니고 이화와 첨예한 대립을 한다. 〈이화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 (가) -1 임진왜란에 원군으로 참전했던 명의 장수 이여백은 전사하여 그 혼이 전라도 여산의 한 집의 자물쇠에 접하다.
- 2 전라도 여산 고을에서 원이 부임하면 죽는 변고가 계속되자, 이화가 여산 원으로 갈 것을 자청하다.
- (나) -1 이화는 자라 요괴를 퇴치하고 이여백의 혼이 접한 자물쇠를 연다.
- 2 이여백의 혼이 은행나무에 사는 1000여 년 묵은 여우 자웅이 일으키는 작란으로 원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다.
- (다) -1 은행나무를 베니 백발노인으로 변신한 여우가 나타나다.
- 2 수여우만 퇴치하고 암여우는 놓치는데, 이여백은 이 때문에 삼년 뒤 이화가 명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다.
- (라) -1 도망한 암여우는 명 황제가 총애하는 귀비를 해치고 그 모습으로 변신하다.

-2 여우는 황제에게 이화를 모함하고, 황제는 이화를 잡아오게 하다.

(마) -1 이여백의 혼령이 보라매를 구해서 가라고 알려준다.

-2 황제와 귀비의 앞에서 보라매를 풀어 놓자 보라매가 귀비의 눈을 쪼아 먹고 귀비는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여 죽다.

-3 이화는 무신후에 봉해지고 조선에 돌아와 이여백의 사당을 짓고 제사지내다.

(가)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설명된다. 이화는 여산 고을 원의 계속되는 죽음이라는 변괴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산 고을의 원으로 부임한 이화는 (나)에서처럼 자라요괴를 퇴치함으로써 이여백의 원혼이 접한 자물쇠를 얻는다. 그리고 이여백의 원혼에게 여산 고을에 일어난 원의 연이은 죽음이 천여 년 묵은 여우의 작란때문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이화는 (다)에서 은행나무에 사는 여우를 퇴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려고 한다. 고을 사람들은 신선이 산다며 반대하지만, 이화는 결국 나무를 베다. 그러자 나무 위에서 백발노인들이 나타나고 이 중 하나를 잡고 보니 여우였다. 은행나무에 살던 여우는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화하여 신선 행세를 하고, 원을 해치는 요괴였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우가 변신을 통해서 신선임을 빙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화는 수여우만을 퇴치하고 암여우는 놓쳐버리고 만다. 이를 지켜본 이여백의 원혼은 이화가 삼년 뒤 명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는 달아난 암여우로 인해서 이화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화에게 양심을 품은 암여우는 (라)와 같이 명(明) 황실로 가서 황제가 총애하는 귀비를 잡아먹고 그 해골을 뒤집어 써 귀비의 모습으로 변신 한다. 귀비로 둔갑한 암여우는 이화가 자신을 해치려하는 꿈을 꾸었다고 모함하고, 이에 황제는 이화를 불러들인다. 이화와 여우요괴는 여산 고을에서 중국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대결하는 것이다. 암여우의 이러한 행위는 남편을 죽인 이화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악행을 일삼던 이 여우는 귀비라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을 해치고 그로 변신하여 권력의 힘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려고 하는 집요한 면모를 보인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화는 명으로 향하는데 이때 (마)와 같이 보라매를 준비해 가라는 이여백 원혼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화가 황제와 귀비가 앉아 있는 앞에서 보라매를 풀어 놓자, 보라매가 귀비의 눈을 쪼아 먹고 귀비는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죽는다.

〈이화전〉에서 여우는 변신이라는 초월능력으로 여산 고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원을 해치는 사악한 요괴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여우의 변신은 여인의 모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

라 신선의 모습으로까지 변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우는 변신능력을 바탕으로 이화에 대한 복수를 집요하게 전개하는데 이를 통해서 여우가 ‘복수의 화신’으로서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한국의 여우담, 여우의 초월성의 서사적 변모 양상

여우가 지닌 초월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우의 초월성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우의 초월성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신이(神異)에 가까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괴이(怪異)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양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은 대개는 양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변모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3.1. 초기의 신이적(神異的) 초월성

한국에서 여우를 토tem으로 삼아 숭앙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기록의 편린들을 통해서 여우를 특별한 동물로 인식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 예로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 여우의 형상도 남아있다. 이것은 단편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고대의 사람들이 여우를 특별한 동물로 여겼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산해경>의 ‘대황동경’을 살펴보면, “청구국(靑丘國)에는 꼬리가 아홉 개인 여우(九尾狐)가 있다.”고 하고, 곽박은 “구미호는 덕이 있으면 나타난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sup>17</sup> 구미호는 일반적인 여우는 아니지만 여우에 대한 신성관념이 투영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광서화>에서 여우는 “신술(神術)이 으뜸이며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도 통달치 못함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16 박대복 (2008). <설공찬전>의 필화와 괴이적(怪異的) 문학관. 어문연구, 140, 269-296.

17 정재서 (2004). 산해경. 서울: 민음사, 228.

나타난다. 여우의 초월성은 비구승의 징치 과정과 원광의 유학을 돕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여우가 초월성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광서학〉에서 원광과 비구승은 여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 원광은 허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신이한 현상으로 여기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신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비구승은 ‘호귀(狐鬼)’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비구승이 여우를 신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현혹하는 부정적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품의 전반에서 드러나는 신격으로서의 여우의 신성, 즉 신이적 초월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양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심은 초월적 위력 앞에서 부정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여우는 산을 무너뜨려 비구승이 머물던 암자를 통째로 매몰시켜버린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비구승은 그 사람됨이 모질고 사나웠으며, 주술로 수련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술을 수련의 방법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수행까지도 방해하는 인물이며, 신성을 의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결과 비구승은 원광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여우라는 신격의 징치를 받는다. 이렇듯 정도에 어긋난 주술을 일삼던 비구승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여우에게 징치를 당했다는 것은, 여우가 신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우는 신격으로서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격의 능력 발휘의 핵심이 원광의 당 유학을 돕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신격이 원광에게 당 유학을 권하는 것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무리를 인도하라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광은 신격이 마련한 방도에 따라 11년간의 당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설법을 통해서 여러 중생들의 구원에 힘쓴다. 즉 여우의 초월성은 중생을 구제하는 긍정적 성격, 더 나아가 신이성을 보여준다.

한편 〈원광서학〉은 단편적인 기록이 아니라 온전한 서사로서 여우의 신이적 초월성이 인정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것은 여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여우의 신이적 초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광서학〉 이후로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의 등장은 〈강감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감찬의 출생에는 이물교혼 모티프가 수용되고 있다. 이물교혼은 서동설화, 견훤설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로 태어난 인물의 비범성의 근원이 된다.<sup>18</sup> 이로 미루어 볼 때 강감찬의 출생에 관여하는 여우의 초월성은 신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감찬>의 여우는 <원광서화>에서 신격으로 나타나는 여우에 비하면 신이적 초월성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강감찬>에서 여우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강감찬의 부친과 관계하여 강감찬을 낳고는 사라진다. 여우에게 확인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이란 강감찬의 부친이 자식을 낳기 위한 초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는 것과,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는 <원광서화>의 신격이 보여주었던 신술이나, 위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그의 초월성이 강감찬에게 전이되어 강감찬이 지니는 신이한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강감찬은 모계의 신이성을 물려받아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강감찬>의 여우는 영웅의 출생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신모로서 신이적 초월성을 지니는 것이다.

<강감찬>은 후반부에서 여우와의 교혼을 통해 출생한 강감찬이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강감찬은 호환(虎患)을 일으키는 호랑이 무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모기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을 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우의 소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적은, 혼례를 치르러 가던 신랑을 죽이고 그 모습을 취한 변신한 여우를 강감찬이 알아보고 퇴치한다는 것이다. 강감찬이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신모인 여우의 신이성이 강감찬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강감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 이야기 안에서 다른 두 성격의 여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동일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의 발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감찬의 친모인 여우가 신모로 형상화되는 반면, 여우신랑은 사람을 해쳐 그 모습을 훔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괴이적 존재로 그려진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초월 능력을 다른 층위로 구분하는 것은 그 능력의 발휘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강감찬의 친모인 여우는 강감찬의 부친이 정기(精氣)를 모은 것을 알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는데 이는 영웅의 탄생을 위한 행위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강감찬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으로 인간들을 위해 기여한다. 이에 반해 여우신랑은 사람을 잡아먹음으로써 희생된

---

18 김중대 (2001).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체계. 서울: 다른 세상, 283-284.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존재이다. 즉 여우신랑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감찬>에는 신이와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신랑은 신모로부터 신이적 초월성을 물려받은 강감찬에게 퇴치당한다. 이는 여우의 초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공존하는 여우의 초월성에 대한 긍정·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우위로 귀결되는 사례는 ‘이성계의 건국을 도운 여우’ 이야기<sup>19</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여우는 젊은 여인으로 변신하여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앓게 하고, 무당으로 변해 치병곳으로 치유한다. 그리고 그 사례로 받은 돈을 조선 건국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여우는 이성계를 도와 건국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인물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성계의 주변 인물들은 여우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것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여우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우는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고, 신령에 의한 조선왕조의 건국을 예견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노력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인식이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여우의 신이함을 인정한다. 여우의 행위가 결국에는 조선의 창업이라는 위업을 돕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신이한 예조(豫兆)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회에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여우의 괴이적 초월성에 대한 인식이 신이적 초월성으로 극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신이적인 초월성을 지닌 여우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힌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광서화>의 신격은 원광에게 자신의 죽음을 지켜봐줄 것을 부탁하고, <강감찬>에서 신모는 강감찬의 부친에게 자신의 본신이 여우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양상은 ‘이성계의 건국을 도운 여우’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신이성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본다.<sup>21</sup>

<강감찬>에서 나타나는 여우가 지니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여우가 인간에게 접근할 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19 박계홍, 황인덕 (1982). 한국구비문학대계 4-5.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8-231. ; 이수자 (1998). 설화 화자 연구. 서울: 박이정, 113-115.

20 이화영 (2010). 이성계설화의 전승과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1 강진옥 (1994), 16.

면 이러한 특징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여우’의 한 전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22</sup>

요컨대 <원광서학>과 <강감찬>은 서사문학에서 여우의 신이적 초월성이 작품의 전반에서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이적 초월성을 바탕으로 한 여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 부터 신이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여우의 행위는 결국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사문학 이후에는 신이적 초월성은 점점 약화되고,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괴이적 초월성이 강조된 여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3.2. 괴이적 초월성으로의 변모

<전우치전>에서 호정(狐精)을 삼키고 변신술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전우치는 소녀로 변한 여우와 교합한다. 여우와의 교합은 전우치에게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전우치가 여우와 교합했기 때문에 글을 배워도 세상의 이치를 깨칠 수 없다는 윤공의 말에서 확인된다.

윤공은 전우치에게 호정을 빼앗을 것을 권유하고 이를 따른 전우치는 호정을 삼키고 변신 능력을 얻게 된다. 호정을 삼킴으로써 여우의 능력이 전우치에게 전이되는 것은 강감찬이 여우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동물을 알아보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강감찬>에서는 그 신이성이 자식에게로 이어지는데, <전우치전>에서는 관계를 맺은 당사자인 전우치에게 전이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초월성의 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본다.

<전우치전>의 여우는 교합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구슬을 제공함으로써 전우치가 신이한 능력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전우치전>의 여우는 신이성과 괴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구미호의 경우도 신이적 초월성과 괴이적 초월성을 동시에

---

22 여인으로 변신여우에 대한 관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온달열전>에서 온달은 자신을 찾아온 평강공주에게 “이는 어린 女子의 행동할 바가 아니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다.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변신능력을 지닌 여우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서사문학에서 정형화된 캐릭터로 구현되는 것은 <강감찬>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전우치에게 접근하는데 그 정체를 알게 된 전우치는 부용승과 부적으로 구미호를 제압한다. 구미호는 세금사와 성립사에 일어난 재변의 원인으로 수많은 승려들을 해친 요괴인데, 미모의 여인으로 변신하고 접근하여 전우치를 해치려고 한 것이다. 전우치는 구미호를 잡고 구미호에게 천서를 얻는다. 하지만 천서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전우치는 구미호를 통해 천서 세 권중 한 권의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이처럼 구미호는 사람을 해치는 요괴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 천서를 지니고 그 내용을 통달했다는 데에서 하늘과의 관련성을 지닌 신이한 존재로의 면모도 함께 보여준다.

결국 <전우치전>에 나타나는 구미호 역시 앞서 살핀 호정을 빼앗기는 여우처럼 신이적 초월성과 괴이적 초월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에 상반되는 두 초월성이 병존하고 있는 것은 신이적 초월성이 괴이적 초월성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이중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는 <삼한습유><sup>23</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삼한습유>에서 여우는 부정적인 초월성이 신이적 초월성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천상에서 적당한 향량이 겪는 원사(冤死)와 재생, 효렴과의 결연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작품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향량이 적당하게 되는 계기와 그가 인세에서 겪는 고난이 바로 천년 묵은 호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력은 향량과 효렴의 결연과정에서 나타난 자부대선의 말에 의해서 밝혀진다. 향량과 효렴은 전생에 각각 천상의 패향옥녀와 관화동자로서, 호정이 패향옥녀의 향을 빼앗으려는 것을 관화동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연으로 서로 연모의 마음을 품게 되어 적당하게 된 것이다. 천상계에서는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고 선적(仙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계에서 그들의 삶을 후하게 해주어서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한다.<sup>24</sup> 그런데 향을 빼앗는 것에 실패한 것에 앙심을 품은 호정이 이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방해하려는 마음으로 못된 모자를 구해 향량과 혼인케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박해를 받아 소박당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조씨의 아들로 하여금 늑흔을 강요하게 하여 향량을 자살로 몰고 간다.

23 <삼한습유>는 김소행이 1814년에 지은 작품으로 '향량의 원사(冤死)'를 소재로 하여, 향량의 재생, 천상회의, 천군과 마군의 대전, 삼국통일 등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24 조혜란 (1994). 삼한습유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 전공.

〈삼한습유〉에서 천상의 존재로서 호정은 인세의 일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초월성을 지니며, 향랑에 대한 복수를 위해 천상의 법칙까지도 위반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상제가 뇌공에게 벼락으로 호정을 징치하라고 지시하지만, 호정은 벼락을 피하면서 도망친다. 이처럼 호정은 뇌공의 힘으로도 퇴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초월적 능력으로 향랑을 고난에 빠트리고 있다. 즉 〈삼한습유〉의 호정은 강력한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즉 〈삼한습유〉에 나타나는 이러한 호정의 모습은 〈전우치전〉에 비해서 신이성은 약화되고, 괴이적 초월성이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화전〉에 이르면 여우에게 신이한 면모는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오직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요괴로서의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화전〉에서 여우의 초월성은 앞선 경우에서 처럼 변신능력으로 나타난다. 여우는 오래 묵은 은행나무 속에 숨어 살며 여산 고을의 원을 해치고, 신선의 모습을 빙자하여 고을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 여우는 오로지 사람을 해치고 현혹시키는 부정적 존재로서 괴이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고을 사람들은 여우의 실체를 모른 채 신선으로 섬긴다. 그렇지만 이여백의 혼령이 접한 자물쇠를 얻은 이화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게 되고, 고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우의 본거지인 은행나무를 없애려고 한다. 이화는 나무를 베고 수여우를 죽이지만 암여우는 놓쳐버리고 만다.

홀로 살아난 암여우는 이화에게 양심을 품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황제의 애첩을 죽이고 그녀로 변신하여 그녀 행세를 한다. 이것은 여우가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sup>25</sup> 괴이적 초월성을 기반으로 한 애첩으로의 변신은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작품의 구조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화와 암여우의 보다 적극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소설이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게 하는 구실을 한다.<sup>26</sup>

결국 작품의 후반부는 이화에게 양심을 품은 암여우와 이화의 대립구조로 전개되는데 여우의 여우의 변신 능력과 복수심이 결합되어 작품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서는 여우가 주인공의 내력을 설명하는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이화전〉에서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적대자로서 작품의 서사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5 김민영 (2003). 고소설에 수용된 변신 화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대학원, 58-59.

26 한명현 (2001). 이화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52.

물론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후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타지>설화<sup>27</sup>나 <밀본죄사><sup>28</sup> 등에서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타지>에서 여우는 사미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술을 통해 용왕을 제압하고 용왕 일가(一家)를 해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나며, <밀본죄사>에서는 선덕여왕이 앓았던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나아가서 당시 신라의 사회적 병폐로 해석되기도 한다.<sup>29</sup> 이처럼 여우가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은 이른 시기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작품과 함께 여우의 신이적 초월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원광서학>, <강감찬>과 같은 작품은 여우의 초월성에 대한 관념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원광서학>, <강감찬>에서는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등장한다. 그리고 <전우치전>에서 여우는 신이적 초월성과 괴이적 초월성이 병립하고 있으며, <이화전>에서 여우는 괴이적 초월성만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여우의 초월성이 신이적 초월성은 초기의 작품에서 나타나다가 점차 사라지고 괴이적 초월성만 남게 되는 양상으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구비문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전승되는 여우 설화가 <여우구슬>, <소금장수와 구미호>, <여우누이> 등의 여우퇴치담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설화에서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며, 그것을 간파한 이인이나 우연한 목격으로 그 정체를 알게 된 사람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신이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여우의 모습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 시기를 추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광서학>, <강감찬>, <전우치전>,

27 『삼국유사』 권2, 기이(紀異)2, 「진성여왕 거타지(眞聖女王 居陀知)」.

28 『삼국유사』 권5, 신주(神呪)6, 「밀본죄사(密本摧邪)」.

29 김지선 (2005). 한중일 여우이야기에 대한 비교학적 고찰. 중국어문논총, 29, 518.

〈이화전〉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우가 지니는 초월성의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원광서학〉에서 여우는 신격으로 존재하며, 그 초월성을 시술을 행하는 비구승을 징치하고, 원광이 신승의 경지에 오르도록 기여하는 데에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강감찬〉에서 여우는 강감찬의 부친이 공들인 것을 알아보는 능력과 변신 능력을 발휘해 영웅을 출산하고 신이한 능력을 물려주는 신모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두 작품에서 여우의 초월적 능력은 인간을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신이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전우치전〉에 나타나는 여우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괴로서의 모습과 신물을 지니고 전우치의 능력 획득에 기여하는 신이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그리고 〈이화전〉에서는 여우는 변신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신선을 빙자하기까지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복수를 전개하는 요괴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여우의 초월성은 신이적 성격에서 괴이적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원광서학〉은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 여우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여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의미를 지닌다. 〈강감찬〉은 ‘여인으로 변신하는 여우’의한 전형이 마련되는 작품으로 강감찬이 여우신랑을 퇴치하는 것에서 신이성이 강하게 남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전우치전〉은 신이성과 괴이성이 병존하는 여우가 등장하는데 이는 여우의 초월성이 신이성에서 괴이성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이화전〉에서 여우는 괴이적 초월성만을 지닌 존재로 그 능력으로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적대자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글에서 필자의 의도는 서사문학에서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는 여우의 성격을 사적(史的)으로 구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정 자료의 제한, 논리적 비약 등으로 논의가 엉성하여 비판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다만, 우리 문학의 흐름 속에서 생동하고 있는 초월적 여우라는 캐릭터의 정립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라고 본다.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여우의 성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음 기회에 자료를 좀 더 보완하고 정치한 해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Kim, Ji-sun (2005). Comparative Review of the Story of Foxes in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9, 501-525.
- Park, Tae-bok (2008). The Affair Brought on by *Seolgongchanjun* and a Strange View of Literature.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140, 269-296.
- Park, Tae-bok, Yoo, Hyung-dong (2009). The aspects of goblin's character and elimination shown in YeouNui. *EOMUNHAK-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06, 149-177.
- Lee, Myung-hyun (2007). The Traditional Imagination of Nine-tailed Fox and Its Reproduction through Animation in Yobi, the Five-tailed Fox.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Film*, 8, 189-210.
- Lee, Su-ja (1998). The study of narrators of narratives. Seoul: ParkYijung, 113-115.
- Jeong, Jae-seo (2004). *Shanhajjing(山海經)*. Seoul: Mineumsa.

## 한국의 여우 이야기, 여우의 초월적 성격과 변모 양상

유형동

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한국의 여우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그리고 논의의 핵심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여우의 모습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하는지 살펴본 것이다. <원광서학>, <강감찬>, <전우치전>, <이화전>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여우가 지니는 초월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원광서학>, <강감찬>, <전우치전>, <이화전>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여우가 지니는 초월성의 양상, 변모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 <원광서학>에서 여우는 신술로 원광이 신승의 경지에 오르는데 기여하는 신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강감찬>에서는 영웅을 낳는 신모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여우의 초월성이 강감찬의 능력과 인과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두 작품에서 여우는 인간에게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신이적 초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한편, <전우치전>에서 여우는 신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우치의 도술 획득에 도움을 주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화전>에서 여우는 변신으로 사람을 해치는 요괴로 괴이적 초월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살폈다. 여우의 변신능력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선으로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이화에 대한 복수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초월적 성격의 여우는 초기에는 신이적 초월성을 보여주다가 후기로 갈수록 괴이적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핵심어** 여우, 초월성, 신이, 괴이, 신격, 신모, 요괴, 적대자

이 논문은 2023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